



미국의 도서관 및 도서관학계를 돌아보고

이 봉 순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장)

작년 9월 말부터 금년 2월 초까지 미국 국무성 초청을 받고 이화여자대학교 후원으로 미국의 도서관 및 도서관학계를 시찰할 기회를 가졌다. 1954년 봄에 귀국한 이래 14년만에 다시 찾는 미국이었다. 여러가지로 변화와 새로운 발전을 예상하면서 길을 떠났다. 만 4개월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비교적 여유있게 대학도서관과 도서관대학을 방문하고 미국 도서관계에 제신 전문가와 교수들을 만나볼 예정이었다. 모든 절차 및 계획은 미국도서관협회 국제친선부에서 맡아 작성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8월에 ALA 국제친선부장이 이 문제가 미처 해결되기 전에 별안간 돌아가셨다. 그 후임을 맡아 보실 분은 해외시찰여행중이었다. 떠나는 날까지 일정을 확실히 잡지 못하고 비행기에 올랐다. 여러가지로 걱정스러웠으나 하와이를 지나서 시애틀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 순서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게 되었다.

하와이는 어느 남양 섬에 내린 듯한 기분이었다. 지명이 모음으로 끝나는 곳이 많고 동양인 얼굴이 많아서 미국에 온 감이 나지 않았다. 이스트웨스트 도서관과 도서관대학을 방문하고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도 가 보았다. 국민학교 도서관에서는 한국 이야기도 해 주었다. 뜻밖에 발을 벗고 다니는 학생이 많아서 이채로웠다. 바다빛, 하늘빛 그리고 무성한 열대식물, 꽃, 하와이는 역시 아름다운 곳이었다.

서부에서는 시애틀시에 내려서 와싱턴 대학 도서관장 밀체브스키 씨의 안내로 도서관 및 도서관대학을 보고 공공도서관 분관을 여러 곳 찾아 보았다. 와싱턴 대학은 특히 한국연구과가 있어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들에게 특강을 해주었다. 상항에서는 버클리 대학 도서관 및 도서관학교를 찾아 보고 스탕크 학장 및 단튼 씨와 도서관학 교과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그리고 오크랜드에 있는 밀스 여자 대학 도서관도 보고 헤이우드 도서관에도 가 보았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UCLA 대학 도서관 및 도서관대학을 찾아 보았다. UCLA는 한국 교전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처리, 보관도 잘 되어 있는데 놀랐다. 투산에 있는 아리조나 대학에서는 도서관보다 미국 인디안을 위한 박물관을 위주로 보았다. 미국속의 사막

지대를 엿볼 기회가 있었다.

중부에서는 시카고가 중심이 되었다. 우선 ALA 본부를 찾고 도서관교육부장이신 애쉬임 박사를 만나 장시간 도서관학 교과과정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존·크레아 도서관, 일리노이 대학 시카고 분교, 로자리 대학 도서관학교 및 스키기 공공도서관을 보았다. 엘바나시에 있는 일리노이 주립대학은 1951년에 6주간 코스를 한 일이 있어 옛집 찾는 기쁨으로 들렀다. 도서관이나 도서관대학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나 주위가 변하여 찾을 길이 없었다. 모든 대학도서관들이 듀이십진분류표를 집어 치우고 LC 분류표를 쓰는 데 일리노이 대학만은 아직도 듀이십진분류표를 고집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이었다. 인디애나 주립대학은 필자의 모교이다. 부루밍턴 캠퍼스는 어찌나 확장되고 변했는지 옛 모습을 찾을 길이 없었다. 도서관학과가 단과대학으로 승격하고 십여명되는 교수들중에 옛 선생님은 세분 뿐이었다. 인디애나 대학은 십대 주립대학중에 하나였는데 14년 동안에 학생수가 1만 5천명에서 3만 5천명이 되었고 Campus도 배나 확장이 되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의 대학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가를 알 수 있다. 도서관 대학 학생수가 300여명이나 되는데 옛날에 30명에 비하면 열배나 늘은 셈이다. 선생님들과 같이 옛정을 나누기도 하고 비교도서관학 시간에 들어가 한국도서관학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다. 앤아버에 있는 미시간 대학은 도서관학과가 역사나 명성으로 보아 기대한 것 보다 발전 못하고 있는 인상이었다. 학교장도 아직 임명이 안되어 대리를 보고 있고 그 당시 대학 승격 과정을 밟고 있는 형편이었다.

동부에서는 마침 뉴요크주 도서관협회 연회가 뉴요크시에서 열리고 있어 도서관대학 방문을 포기하고 회의 참석에 주력하였다. 대학에 찾아가야 만나볼 분들은 다 회의에 나가고 만나되지 못할 바에야 회의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았다. 콜럼비아 대학의 달튼 박사, 푸에르트의 슈리퍼 박사 그리고 롱아일랜드 도서관대학장들을 만나 뵈었고 도서관학 관계 교수들도 만나 환담 할 기회가 있었다. 뉴요크에서는 그 유명한 공공도서관을 찾아가 보았고 UN에 있는 하마셴드 기념도서관도 보았다. 울바니에

있는 뉴욕주립대학은 도서관 건물이 새롭고 도서관 대학에는 비제스 씨가 있어 옛이야기로 꽃을 피우기도 하고 비교도서관학 시간에 들어가 한국실정을 이야기 해 주고 질문도 받았다. 코넬 대학에서는 케이서 박사의 특별한 후의로 잘 지냈고 오로라에 있는 웰스 여자 대학 도서관도 보여 주었다. 버팔로에서는 맨 박사가 안내 해 주셔서 도서관 및 도서관대학을 보았다. 마침 주말이 되어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 볼 수 있었다. 보스톤에서는 하버드 대학 도서관 및 학부도서관, 엔칭 도서관을 보고 레드클리프 여대 도서관, 시몬스 대학 도서관 및 도서관대학을 보고 다시 하버드 의대 도서관과 크리스찬 사이렌스 신문사 신문도서관도 보았다. 그리고 옛날 사원을 그대로 보존하여 고색이 창연한 예일대학 도서관과 귀중도서관만 보존하는 대리석 도서관은 인상적이었다.

체플힐에 있는 노스캐로라이나 대학 의학부도서관 및 연구도서관을 보고 도서관대학에 가서 「한국의 도서관 및 도서관교육」이란 제목을 가지고 특강을 하였다. 학생들도 교수들도 다 한국도서관교육에 대한 관심이 컸다. 그곳에서 머지않은 거리에 있는 듀크 대학 캠퍼스도 돌아 보았다. 신축중에 있는 도서관은 돌아볼 수가 없어 유감스러웠다. 버지니아주에서는 V. P. I. 공대 도서관을 보았다.

외싱턴에서는 국회도서관을 보는데 일주일일이 걸렸다. 그리고 교육국도서관, 농림부도서관, 스미스소니언 도서관 및 국립의학도서관을 보았다. USB에 가서 불 여사를 만나고 자료교환에 대한 의논을 하였다. 대학은 가톨릭대학에서 콜덴디크 신부를 만나고 도서관 및 도서관대학을 구경하였다. 그리고 메리랜드 대학 도서관 및 도서관대학을 방문하고 아메리칸 대학도서관도 찾아 가 보았다.

지금까지 예로 든 것은 그중 대표적인 곳 뿐이고 전부 26개 도시를 거쳐서 68개 도서관을 보았다.

지난 10여년동안 미국의 도서관들은 질로 양으로 많이 변모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도서관건축의 발전이었다. 도서관 기능을 살리는데 고심한 흔적이 보이면서 동시에 시각적으로는 아름답고 사용하기에 편하고 공간의 처리, 색의 조화가 잘 되어서 어떤 도서관은 옛날의 전통적인 도서관의 인상을 전연 무시하고 마치 미술관에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도서관건축의 발전은 눈부신 변모를 가져 왔다고 보았다. 특히 대학도서관의 변모한 모습이 이채로웠다. 공공도서관은 14년 전에도 양탄자를 깔고 현대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았다. 그러나 대학도서관들은 어딘가 오래된 건물에 전통적인 도서관 냄새를 많이 풍기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대학도서관들이 새건물을 짓고 4년제 학

부도서관과 연구도서관을 분리하여 학부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반듯하고 현대 감각을 주고 친밀감을 주는 분위기에 양탄자를 깔고 마치 어느집 응접실에라도 들어가는 기분으로 만들고 학생들을 유인하고 있었다. 비오는 날 젖은 신발로 밟기는 송구스러울 정도였다. 건물로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웰스 여자 대학 도서관이었다. 이 건물은 건축가가 도서관 기능보다는 미적인 예술작품을 만드는데 고심한 결과이었다. 건물만 놓고 보면 현대도서관의 극치였다. 지은지 일년반밖에 되지 않고 아직 새집 냄새가 그대로 코에 스며드는 이 여자대학 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관의 이미지를 아주 없이한 하나의 이상형이라 보았다. 어느 정도 도서관기능의 합리화를 건축가가 고려했는지 의문이었지만 아름다운 도서관임에는 틀림 없었다.

그 다음 눈에 뜨인 것이 도서관 자료정리 및 봉사면에서의 기계 도입이었다. 복사기, 전자계산기, 영사기 등이 도서관에 자리잡고 판을 치는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리고 모든 도서관 통계를 내는 전자계산기실에 들어갔을 때나 카드 복사실에 들어갔을 때 도서관에 있다는 기분 보다는 차라리 어느 공장 기계실에 들어간 기분이었다. 그리고 도서관에는 파랗게 젊은 과학기술자들이 전에없이 많이 눈에 뜨이는가 하면 수업을 기르고 머리를 길게 기른 전자계산 전문가들이 와이푸를 물고 앉아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어 그리 열심으로 드러다 보느냐는듯한 표정을 지어서 보는 이를 무안하게 하기도 하였다. 도서관의 기계화는 빠르고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는데 이바지하는 점이 큰 대신 분위기를 조성하는 도서관다운 면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한편 서운한 감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도서관의 기계화는 필연코 와야 할 하나의 피치못할 조건인것 같았다. 이를 받아드리는 도서관은 그 나름으로 자체비판을 하고 분석해 본 후에 해야지 성급하거나 유행심리로 남이 하니 나도 한다 식으로는 뒷처리가 개운치 못할 것 같다. 오히려 경제적이 못되고 더 불편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 복잡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자계산기요 새로운 기계인것 같다. 그렇다고 아예 겁부터 집어먹을 필요는 없을것 같다. 그러므로 도서관인의 과학기술교육이 필요해진것 같다.

참고업무나 서지 작업면에서 빠르고 신속한데 놀랐다. 국한된 행정구역내에서나 이웃 도서관간에 통신망이 있어서 참고사무를 서로 빨리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찾아서 빌려볼 수 있는 자료교환 및 대여기관이 확립되어 있어서 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국내서지는 물론 외국자료까지 찾아 볼 수 있는 보조자료가 정기적으로 발간되는가 하면 마이크로필름센터 같은 것이

있어서 박사학위는문 등 흔히 나돌지 않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미시간 대학 마이크로필름센터가 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어느 특정한 페이지에서 부터 한편의 책에 이르기까지 독자가 원하는 대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내주는 곳이였다. 상호대차 사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신용도가 높아져서 서로가 밀고 서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본받을 만한 일에 하나라 느꼈다. 어떤 종류의 도서관이나 옛날처럼 앉아서 찾아오는 독자만 기다려 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나서서 독자를 찾아 다니는 식의 봉사를 하고 있었다. 빠르고 변하는 시대에 처해 있는 도서관 및 도서관인들이 생각해 볼 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았다. 도서관은 어느새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도서관인들이 자가 도취에 빠져 전문적 전문직 하면서 나만의 세계라고 생각하고 안도감을 가지고 앉아 있던 세대는 지났다고 보았다.

미국의 도서관학계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재래식 도서관학이 정보 과학과 서로 어울려 일부 혼합되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19세기 말엽에 생겨난 도서관교육이 1930년대에 와서 미국도서관협회 도서관 교육위원회가 카네기 재단의 원조를 받아 10년간의 노력으로 기반을 닦은 후 시카고 대학이 앞장을 서서 미국 학계의 인정을 받는데 성공하였다. 1940년대에 와서야 도서관인 양성을 위한 대학원 과정이 제대로 자리잡히고 교과과정도 합리적으로 배치되었다. 1950년대에서 1960년 초기까지의 도서관교육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이론 및 실무를 고루 배정하고 주제별 서지, 자료선택, 참고업무, 자료정리 그리고 도서관행정 등을 다루어 왔다. 그런데 1960년 하반기에 들면서부터는 기계화라는 도서관운영과 더불어 도서관학 교과과정에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본다. 이 점이 미국의 도서관학계가 변모해가는 인상을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재래의 전통적인 도서관학과 정보과학이 어느정도 서로 겹쳐서 혼란을 가져 오기도 하고 서로 충돌되어 고민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아주 두 가지를 따로 분리하여 별도로 학위를 주는 곳도 있었다. 미국은 도서관학을 대학원에서만 취급하므로 학부에서는 도서관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없다. 부전공으로 몇 학점 딸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다루는 도서관학이 연한으로 보아서는 일년 아니면 일년반에 끝나므로 도서관학에 몸담아 잡혀있는 기간이 짧은 편이다. 그러므로 어떤 대학은 도서관에서 2년 혹은 3년 경험을 얻은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곳도 있다. 요는 도서관인다운 도서관인권이 뚜렷한 사람을 구하는 때

문인것 같다. 4년제 학부에서 도서관학 전공을 두는 것보다 대학원에서 다루는 이유가 그만큼 나이도 들고 그리고 여러가지로 주제에 관한 지식이 몸에 배인 후에 도서관학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도서관인이라 직업이 나이로나 지식면에서나 좀 더 숙련된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틀이 잡혀가던 도서관학이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와보니 어떤 학자들은 반대하고 나서고 어떤 분은 타협하려 노력하고 또 다른 분들은 도서관학과 정보과학은 별개의 학문이라고 싸갈라 놓는 분도 있다. 그래서 미국의 도서관학은 변모해 가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고 보았다. 도서관학을 가르치고 있는 모든 학교 들의 고민은 도서관 행정부문에서 이 정보과학을 먼저 받아드려 버렸기 때문에 도서관인들은 한걸음 살짝 뒤로 물러선 격이 되었다. 애당초 젊은 기술자들을 일개 기술자로만 알고 도서관인 대우는 않고 채용했던것 같다. 그러나 일은 기계가 하다보니 문제가 점점 간단하지 않게 되었다. 파랑계 젊은 과학자들이 컴퓨터용어만 쓰고 날뛰는데 석사학위까지 받고 오것한 도서관인은 말이 없고 손발이 묶이는 판이니 큰일이 아닐 수 없게 되었다. 순서로 따지면 도서관교육이 한걸음 앞서서 도서관인들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후에 기계화되고 전자계산기가 들어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순서는 바꾸어 기계부터 들어오니 도서관인들은 당황하게 되고 말았다. 도서관교육은 뒤늦게라도 이 떨어진 사이를 빨리 주름잡아 맞춰 놓아야만 했다. 과거 이삼년동안 모든 도서관대학원들이 교과과정을 놓고 고심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도서관교육이 도서관행정기구 보다는 한걸음 앞서야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전통적인 도서관학만 고집하고 한걸음도 양보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도서관인이 필요하고 인간이 기계에 휘둘러서야 되느냐고 주장하는 파도 있고 도서관학과 정보과학을 걸차로 적당히 그리고 서서히 절충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아주 급전해서 거의 정보과학 일색으로 뒤집을 기세를 보이는 곳도 없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올때는 오고 말았다. 과학시대, 기계시대 인간이 지식이나 기억을 기계에 축적시켜서 기계가 이를 대행하는 시대로 변해가는 것 뿐이다. 결국 기계가 빠르고 경제적이고 정확하다 하지만 프로그래머가 있어서 인간이 먹여주지 않으면 전자계산기도 스스로 창작은 못한다. 인간이 위주인것만은 틀림없다. 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다. 도서관인들이 과학자와는 담을 쌓고 기계를 멀리하고 도서관 기능을 제대로 해나가기에 힘든 시대가 앞으로 날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시대를 역행하는 것 보다 바보스러운 일은 없는것 같다. 그렇다고 성급할 것은 없다고 본다. 타협이 필요

할 것 같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도서관대학들이 전통적인 도서관학 과목은 3분의 2로 하고 정보과학 과목은 3분의 1 정도로 절충하고 있는 것을 교과과정표에서 볼 수 있었다.

교과과정 변경까지도 좋다. 그러나 누가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았다. 요는 도서관학 분야에서 정보과학교육을 담당할 교수진이 문제라고 들었다. 과학을 전공했거나 기술만 뉘은 분은 도서관학에는 어둡고 도서관인관이 뚜렷하지 못하니 도서관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어떤 대학은 박사 학위과정에서 도서관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양성을 서두르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러므로 전자과학이 도서관학 분야에 편입되면 서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양립해서 같이 취급하고 교수진은 도서관학을 전공한 분

이 전자과학 및 기술과학 분야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같이 다루는 대학에서 교육받은 분이 가르치는 편이 도서관학을 배우지 않은 순수과학기술자가 맡아 가르치는 편 보다는 낫다는 이론이 우세한 형편에 있다고 보았다. 전향기에 있는 도서관학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는 아무도 예언하기 어렵고 미지수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과감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교육이 구태를 벗어버리고 전자과학분야와 타협하게 될 것 같다. 실제적인 도서관행정과 도서관교육은 서로 별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의 도서관도 기계화를 예상해야 할 것이고 또 이미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고 싶다. 그렇다면 한국의 도서관교육은 그보다 한걸음 앞장을 서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古醫學 書籍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랜 醫學書籍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百濟新集方과 新羅法師方이다. 百濟新集方は 漢方 本草學(藥物學)的 知識에 根據한 民間藥의 處方集과 같은 것이며, 新羅法師方은 “新羅方師秘密方” “新羅法師流觀秘密要術方”이라고도 불리는바 佛敎의 呪術이 加味된 治療法 卽 法師의 秘密方이라고 생각된다.

이 書籍들의 單編의인 句節들을 通하여 볼 때 三國時代의 우리 나라 固有의 治療法이 儒敎와 佛敎의 傳來, 中國文化의 影響으로 말미암아 漢方의 方向으로 發展하기 始作하였으나 아직 迷信의이고 呪術의인 性格을 띠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統一新羅에서는 七世紀末(孝祖王때)에 醫療制度로서 藥典을 두었으며, 博士 두사람을 두어 學生들에게 “本草經” “甲乙經” “脈經” “明堂經” “難經”을 가르쳤다고 한다. “本草經”은 漢方의 古代藥物學 書籍을 말하며, 經과 “難經”은 內科學 書籍이고, “甲乙經”, “針經” “明堂經”은 鍼灸療法에 關한 書籍이며 “脈經”은 診斷學 書籍이다.

여기에 列學된 書籍들은 漢方 古代醫學의 基本的인 書籍들이다. 統一新羅에서 이런 書籍들이 醫學教育에 利用된 것은 우리 나라 醫學이 漢方 醫學으로서의 地盤을 닦기 始作한 것을 말하여 준다.

高麗時代의 醫學教育 科目을 보면 먼저 列學한 것들 外에 皮膚科 및 外科에 該當하는 “劉涓子方”과 “瘡疽論”이 들어 있었다.

高麗醫學도 封建 官僚들의 獨占下에 迷信的인 呪術로서 發展되었으므로 宮廷醫療機關이었던 典醫寺, 奉醫寺의 管制에 博士, 醫正, 醫針, 注藥, 藥童과 함께 呪嚙博士, 呪嚙師, 呪嚙工이 들어 있었으며, 그들은 어떤 秘密的인 處方에 따라 藥을 쓰되 佛經을 의고 呪術的인 行事를 함으로써 藥効를 發揮시키고 病을 治療하는데 從事하고 있었다.

그러나 高麗에서 封建, 官僚制度가 確立되고, 社會, 經濟 情勢가 安定됨에 따라 世紀를 前後한 文化의 一般的인 高潮와 함께 醫學도 發達하였으며, 特히 醫學書籍의 事業은 活潑히 進行되었다.

1056年(文宗十年)에는 西京 留守의 要請에 따라 여러가지 經典들과 함께 醫學書籍들도 많이 雕刻하였으 며, 1058년에는 忠州牧에서 “黃帝八十一難經” “川玉集” “傷寒論” “本草括要” “小兒巢氏療源” “小兒藥證病源” 金宗會(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資料部長)

